

1.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교회,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매일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우리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 금요기도회 :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소예배실에서 모입니다. 창세기 강해를 이어갑니다.

3. 이번주 수요일(18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나누어드린 묵상집을 통해 매일 한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의 고난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사순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4. 말씀묵상 및 실천

1) 마음에 용서하지 못하고 있던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된 것을 값으로 측정한다면 얼마나 될 것 같으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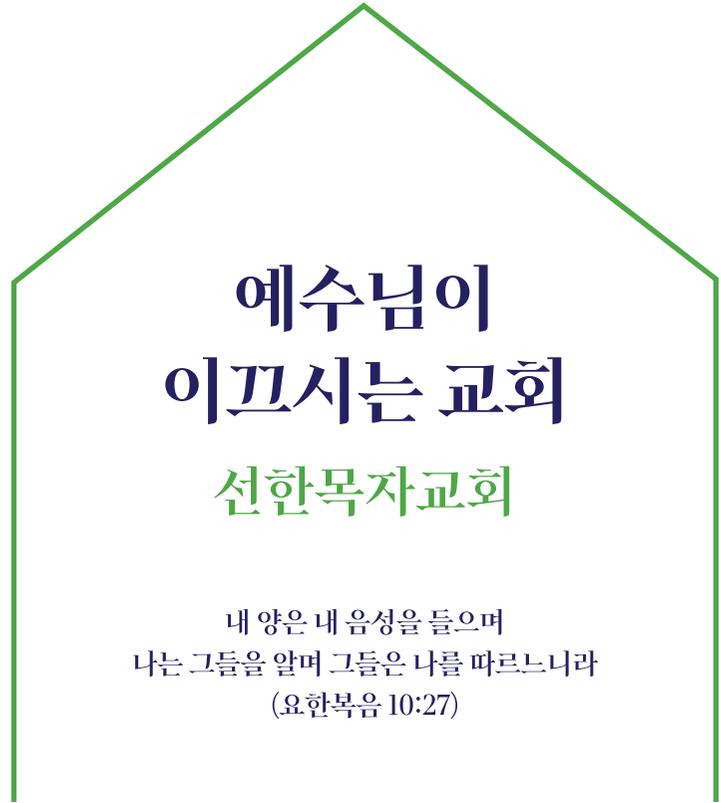
2) 십자가를 바라보며 용서하지 못하던 그 사람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보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및 모임시간 안내

은세대 주일예배	주일오전 11:00 소예배실
교회학교 예배(초등생까지)	주일오전 10:00 소예배실
금요기도회	금요일 저녁 7:30, 소예배실
성전기도	월~토요일 오전 6시~오후 6시
예수님의 사람 제자훈련	주일오후 2시, 세미나실1 (진행시)
PGS 바이블 아카데미	주일오후 2시, 세미나실1 (진행시)

온라인 헌금 안내

은행 : The Bank of Princeton
 예금주 : Philadelphia Korean Methodist Church
 계좌번호 : ABA (routing) 031207940 / Account No : 4600005732
 Check 로 헌금 시 Pay to : PKMC



GOOD SHEPHERD METHODIST CHURCH OF PHILADELPHIA

담임목사 박지훈
ADDRESS 1490 Dillon Rd. Ambler, PA 19002
TEL (215) 654-9101
HOMEPAGE philagsmch.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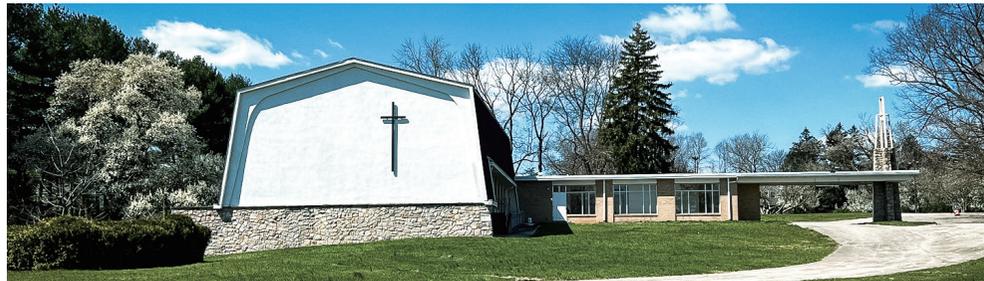
주일에배

God is spirit, and those who worship Him must worship in spirit and truth.

경배찬송	"은혜로다" 외 1곡
기도	김종국 장로
신앙고백	사도신경
환영인사 / 교회소식	박지훈 목사
공동체 찬양	"너를 위해 기도해"
성경봉독	마태복음 18장 15-35
말씀	가스펠프로젝트 신약2-2 "용서 : 그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
결단찬양 및 봉헌	"주만 바라볼찌라"
축도	박지훈 목사

금요기도회

창세기 강해 24	창세기 13:10~18
-----------	--------------



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18:15-35 새번역

15 “네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가서, 단 둘이 있는 자리에서 그에게 충고하여라. 그가 너의 말을 들으면, 너는 그 형제를 얻은 것이다.
 16 그러나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거라. 그가 하는 모든 말을, 두세 증인의 입을 빌어서 확정지으려는 것이다.
 17 그러나 그 형제가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여라. 교회의 말조차 듣지 않거든, 그를 이방 사람이거나 세리와 같이 여겨라.”
 18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는 것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푸는 것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19 내가 [진정으로] 거듭 너희에게 말한다. 땅에서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슨 일 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20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있는 자리, 거기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
 21 그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주님, 내 형제가 나에게 자꾸 죄를 지으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어야 합니까? 일곱 번까지 하여야 합니까?”
 22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일곱 번만이 아니라, 일흔 번을 일곱 번이라도 하여야 한다.
 23 그러므로, 하늘 나라는 마치 자기 종들과 썸을 가리려고 하는 어떤 왕과 같다.
 24 왕이 썸을 가리기 시작하니, 만 달란트 빚진 종 하나가 왕 앞에 끌려왔다.
 25 그런데 그는 빚을 갚을 돈이 없으므로, 주인은 그 종에게, 자신과 그 아내와 자녀들과 그 밖에 그가 가진 것을 모두 팔아서 갚으라고 명령하였다.
 26 그랬더니 종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잠아 주십시오. 다 갚겠습니다’ 하고 애원하였다.
 27 주인은 그 종을 가엾게 여겨서, 그를 놓아주고, 빚을 없애 주었다.
 28 그러나 그 종은 나가서, 자기에게 백 데나리온 빚진 동료 하나를 만나자, 붙들어서 멍살을 잡고 말하기를 ‘내게 빚진 것을 갚아라’ 하였다.
 29 그 동료는 엎드려 간청하였다. ‘참아 주게. 내가 갚겠네.’
 30 그러나 그는 들어주려 하지 않고, 가서 그 동료를 감옥에 집어넣고, 빚진 돈을 갚을 때까지 갇혀 있게 하였다.
 31 다른 종들이 이 광경을 보고, 매우 딱하게 여겨서, 가서 주인에게 그 일을 다 일렀다.
 32 그러자 주인이 그 종을 불러다 놓고 말하였다. ‘이 악한 종아, 네가 애원하기에, 나는 너에게 그 빚을 다 없애 주었다.
 33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겼어야 할 것이 아니냐?’
 34 주인이 노하여, 그를 형무소 관리에게 넘겨주고,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가두어 두게 하였다.
 35 너희가 각각 진심으로 자기 형제자매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예배담당 및 순서안내

	2월 15일	2월 22일	3월 1일	3월 8일	3월 15일
대표기도	김종국 장로	이에스터 사모	공동기도문	김지영 권사	박정인 권사
봉헌	김지영 권사	김지영 권사	김지영 권사	김지영 권사	김지영 권사
안내봉사	윤희주 권사	윤희주 권사	윤희주 권사	윤희주 권사	윤희주 권사